

제국 일본의 출판유통과 식민도시 부산의 독자층 연구*

- 일본인 경영 서점과 염상섭 『만세전』을 중심으로 -

임상민**
y3k76@hanmail.net

이경규***
lk5120@deu.ac.kr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4. 『만세전』의 부산 표상과 공모하는 제국의 시선 |
| 2. 『부산일보』의 신간 광고란과 재편되는 독자층 | 5. 나오며 |
| 3. 일본인 경영 서점의 실태 파악 | |

主題語: 식민도시 부산(Colony city Busan), 하쿠분도서점(Hakubundo(博文堂) Bookstore), 신간 광고란(New book advertising column), 독자층(Reader class), 염상섭(sangseob), 만세전(Mansejeon)

1. 들어가며

1918년 겨울을 배경으로 한 염상섭의 『만세전』은 ‘동경 W대학 문과’에 유학중인 주인공 이인화가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조선으로 귀국하면서 3·1운동 이전 조선의 식민지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여행소설인데, 특히 동경, 고베, 시모노세키, 부산, 김천, 대전, 경성에 일정 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마침내 식민지 조선을 ‘공동묘지’로 인식하게 된다. 시모노세키에서 연락선을 타고 부산에 도착한 이인화는 기차 시간까지 ‘서너 시간’ 남아 부산 ‘시가를 구경하기로 결심하는데, 주인공은 1918년 당시의 부산을 다음과 같이 산책한다.

조선을 축사(縮寫)한 것, 조선을 상징한 것이 부산이다. 외국의 유람객이 조선을 보고자거든 우선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IA5A2A03044310)

** 동의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조교수, 제1저자

*** 동의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교신저자

부산에만 끌고 가서 구경을 시켜 주면 그만일 것이다. 나는 이번에 비로소 부산의 거리를 들어가 보고 새삼스럽게 놀랐고 조선의 현실을 본 듯싶었다. 나는 배 속에서 아침을 먹었던마는, 출출한 듯하기도 하고, 차시간까지는 서너 시간 남았고, 늘 지나다니는 데건마는 이때껏 시가에 들어가서 구경하여 본 일이 없기에, 조선 거리로 들어가 보기로 하고 나섰다. 부두를 뒤에 두고 서편으로 꺾들어서 전차길을 끼고 큰길을 암만 가야 좌우편에 이층집이 쪽 늘어섰을 뿐이요, 조선 사람의 집이라고는 하나도 눈에 띄는 것이 없다. 얼마도 채 못 가서 전차길은 북으로 꺾들이게 되고 맞은편에는 극장인지 활동사진인지 울그테불그테한 그림조각이며 깃발이 보일 뿐이다. 삼거리에 서서 한참 사면팔방을 돌아다보다 못하여 지나가는 지게꾼더러 조선 사람의 동리를 물어보았다. 지게꾼은 한참 망설이며 생각을 하더니 남쪽으로 뚫린 해변으로 나가는 길을 가리키면서 그리 들어가면 몇 집 있다 한다. 나는 가리키는 대로 발길을 돌렸다.)

먼저 이인화의 부산 시내 동선을 살펴보면, ‘부두를 뒤에 두고 서편으로 꺾들어서 전차길을 끼고 큰길을 암만 가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산항에서 지금의 중앙대로(노면전차 선로를 끼고)로 접어들어 직진했다는 것이고, ‘얼마도 채 못 가서 전차길은 북으로 꺾들이게 되고’는 중앙대로와 대청로가 만나는 교차로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소설 속 같은 장면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중앙대로와 대청로의 모퉁이에는 당시 근대화를 상징하는 부산우체국(大倉町3-10, 지금의 중앙동)이 위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식민도시 부산의 근대화를 상징하는 부산우체국에 도착한 주인공은 ‘삼거리에 서서 한참 사면팔방을 돌아다보다’가 ‘남쪽으로 뚫린 해변으로 나가는 길’ 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즉 중앙대로를 따라 중앙동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주목할 부분은 주인공 이인화는 ‘삼거리에 서서 한참 사면팔방을 돌아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라는 점이다. 동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이인화의 목적지가 최초 부산의 ‘시가’ ‘조선 거리’에서 ‘조선 사람의 동리’로 바뀌었고, 이와 같은 궤도 수정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삼거리에 서서 한참 사면팔방을 돌아다보다 못하여’ 내린 선택이라는 점에서, 1918년 당시의 ‘삼거리’ 부산 도시 풍경은 이인화의 근대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중요하다. 그리고 당시 부산우체국을 끼고 있는 ‘삼거리’에는 1906년에 개점한 ‘하쿠분도(博文堂, 大倉町3-8)’서점이 위치하고 있었고, 더욱이 하쿠분도 근처에는 ‘세이문도(淸文堂, 大倉町3-19)’서점 역시 자리를 잡고 있었다. 따라서, 『동경 W대학 문과』에 재학 중이며, ‘산문시술’을 쓰는 ‘스물두셋쫘 된 책상 도련님’이라고 자칭하는

1) 염상섭(2008) 『만세전』 열림원, pp.172-173. 이하 본문 인용도 동일. 『만세전』은 최초 「묘지」라는 제목으로 1922년 7월부터 『신생활』에 연재되었는데, 김열에 의해 제3회가 전문 삭제당하면서 미완으로 끝나게 된다(잡지도 폐간). 이후, 1924년 4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시대일보』에 연재되면서 「묘지」에서 「만세전」으로 제목이 변경된다.

이인화가 ‘삼거리에 서서 한참 사면팔방을 돌아다보’다가 하쿠분도서점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을 리는 없었을 것이다.

또한, 이인화는 연락선 목욕탕 속에서 조선인 농촌 노동자를 속여 일본 기업에 팔아넘기는 일본인 알선업자의 말을 듣고,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 하는 의심이 날 만큼 나의 귀가 번쩍하리 만큼 조선의 현실을 몰랐다’(150쪽)라고 반성하면서 민족의식을 각성하기 시작하는데, 주의할 점은 민족의식이 결여된 지금까지의 자신에 대해서, ‘아버지나 조상의 덕택으로 글자나 얻어 배웠거나 소설 권이나 들춰 보았다고, 인생이니 자연이니 시(詩)니 소설이니 한대야 결국은 배가 불러서 투정질하는 수작’(150쪽)이라고, 스스로를 문학과 조선의 현실을 비교하면서 ‘산문시출이나 쓰던, 자기의 공상과 값싼 로맨티시즘’에 빠진 식민지 조선의 유학생으로 인식 하게 된다는 점이다. 결국, 문학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한 이인화가 ‘삼거리에 서서 한참 사면팔방을 돌아다보’다가 ‘조선 사람의 동리’로 방향을 바꾼 것은 식민지 부산의 ‘학지(學知)’가 진열, 판매되고 있는 하쿠분도서점(후술하듯이, 하쿠분도서점 방면은 당시 일본의 관광 관련 서적이 만들어낸 관광 코스였다)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며, 그것은 지금까지 ‘시(詩)니 소설이니’ 하며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해 온 식민지 유학생을 스스로 부정하려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주인공의 근대성 분석을 위해서는 중앙동 ‘삼거리’에서의 궤도 수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고에서는 제국 일본 출판업의 조선 진출과 식민지 부산의 도시문화 변용에 대해서 고찰을 시도하며, 특히 부산에 존재했던 일본인 경영의 서점, 서점주, 위치, 영업형태, 취급서적 등에 대한 기초적인 실태 조사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보조선으로 1918년 겨울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염상섭의 『만세전』에 나타난 부산 표상과 동시대에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인에 의한 부산 표상 및 다양한 신분의 일본인들이 부산을 경유하면서 생산해낸 관광안내서 등과 비교/분석하면서, 식민지 조선인 유학생으로 설정된 주인공 이인화의 근대성에 대해서도 고찰을 시도한다.

2. 『부산일보』의 신간 광고란과 재편되는 독자층

현재, 식민지 조선에 진출한 일본인 경영 서점에 대한 연구는 한일 양국에서 거의 실태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1906년 부산의 하쿠분도서점과 같은 해에 경성에서 개점한 ‘한일서방(韓日書房)’을 연구한 신승모는 한국에서의 일본인 경영 서점에 대한 연구의

‘결락’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우선 한국의 경우, 근대 한국의 서점이나 출판사를 검토한 연구는 다수 발표되었지만, 이들 연구에서 주로 출판법을 비롯한 일제강점기의 갖은 고난 속에서도 출판을 계속한 조선인 경영 서점 출판사에 대한 통사적인 기술과 국권회복 운동으로서의 민족적 출판 활동만이 이 시기 ‘우리 출판’사의 전체상으로서 강조되고 있다. 이는 한국 근현대 출판문화사의 주체적 연속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입각점에 의한 경향으로 이해되지만, 일본인 경영 서점의 활동과 그 역할을 무시한 채 복원하는 근대 한국의 출판 문화사 또한 ‘결락’을 전제로 한 한정적인 복원이 될 수밖에 없을 터이다.²⁾

신승모는 한국 연구자에 의한 ‘조선인 경영 서점 출판사’에 대한 연구는 ‘우리 출판’이라고 하는 단일 국민국가의 연속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본인 경영 서점을 배제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연구방법론적 시야의 ‘결락’을 지적하고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신승모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고, 한국 연구자에 의해서 ‘결락’된 일본인 경영 서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한국 출판 문화사의 전체상을 그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신승모는 1906년에 개점한 부산의 하쿠분도서점을 조선에 진출한 일본인 경영 서점의 시초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1902년에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안내(韓國案内)』³⁾에는 부산의 요시미서점(吉見書店, 吉見勝次郎, 弁天町3丁目)과 오가타서점(尾縣書店, 尾縣哲太郎, 弁天町2丁目5番地) 2곳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2곳 모두 하쿠분도서점에 비교하면 규모도 작고 오랜 기간 영업하지는 못했지만, 1905년 을사조약 이전에 조선에 진출해서 조선의 학지 구축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에 진출한 일본인 경영 서점의 실태 파악과 그 역할에 대한 연구는 아직 체계적이지 못하며, 더욱이 부산의 일본인 경영 서점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정보(서점수, 서점주, 위치, 영업형태, 취급서적, 지역 내 활동)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다면, 식민도시 부산에는 어디에 어떤 서점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부산의 독자층은 구체적으로 어떤 책을 읽고 있었을까. 먼저, 일본 제국의 이주정책으로 ‘1년 반’을 부산에서

2) 신승모(2011)「조선의 일본인 경영 서점에 관한 시론-일한서방(日韓書房)의 사례를 중심으로-」『일어일문학연구』, p.322

3) 香月源太郎(1902)『韓國案内』青木嵩山堂, p.62 조선의 서적 취급소(大取次所)에 대해서는 京城商品陳列所(京城), 平田書店(京城), 山岡書店(仁川), 町田一葉堂(仁川), 吉見書店(釜山), 尾縣書店(釜山), 松岡常吉(木浦), 山北龜吉(郡山), 松浦常太郎(鎭南浦), 能勢秀(平壤), 渡邊商店(元山), 隅田政吉(馬山浦) 등의 서점 및 서점주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다.

생활한 우가 라몬(烏賀羅門)은 1914년 당시 부산의 ‘서적판매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서적판매업 5곳.

영업은 전업으로 하고 있는 두 곳은 모두 다소 경기가 좋다. 독자가 적은 지역이기도 하고, 독서의 취미 정도도 거의 일정한 듯하다. 즉, 저급, 통속적인 것이나 혹은 당시 인기 작가의 책이 아니면 팔리지 않는다. 실업잡지 또는 강담물, 소설이라면 겐사이(弦齋) 정도의 작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악한 오사카 판 군기 군담류는 한 번도 가게에서 본 적이 없다. 이것은 독자의 연령과 관계가 있는지, 혹은 각 가정이 현실적이고 고전기에 흥미가 없는 탓인지.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동업자의 상업방식이 영업주에게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무튼, 시대 시조의 일과일로는 그다지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투기적인 유행물 등에 반드시 손을 댈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한 판의 신구도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게다가 가격은 기입한 대로 정가로 팔기 때문에, 장사는 상당히 수월하고, 이익 또한 많은 편이다. 다만, 신개척지는 무엇보다도 변화가 급격하고 사상 또한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통찰할 수 있는 활안과 그에 상응하는 수완이 필요하다.4)

우가 라몬은 식민도시 부산은 책을 읽는 사람이 적고 그 때문에 독서의 취미 역시 일정하며, ‘저급, 통속적인 것이나, 혹은 당시 인기 작가의 책’밖에 팔리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메이지와 다이쇼 시대에 활약한 대중소설 작가 무라이 겐사이(村井弦齋, 대표작은 『식도락(食道樂)』이 유명)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듯이, 부산의 독자층은 ‘실업잡지’를 주로 읽는 ‘현실적’이며, 무라이 겐사이와 같은 대중소설을 즐겨 읽는 ‘저급, 통속적’인 독자층으로 표상되어 있다. 또한 헌책방(3곳)과 책 대여점(1곳)을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식민도시 부산에서는 나츠메 소세키(夏目漱石)는 전혀 읽히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부산에는 ‘간사이사람(関西人)’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식민도시 부산은 나츠메 소세키와 같은 순문학은 읽히지 않고 무라이 겐사이와 같은 ‘저급, 통속적’인 대중소설밖에 읽히지 않는 도시 공간이며, 이와 같은 부산의 독자층을 ‘간사이사람’이라고 하는 지역적 특수성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가 라몬의 기록보다 2년 빠른 1912년도의 『부산요람(釜山要覽)』을 중심으로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의 본적별 분포를 살펴보면, 야마구치(山口) 4,766명, 나가사키(長崎) 3,229명, 후쿠오카(福岡) 2,031명, 히로시마(広島) 1,918명, 오이타(大分) 1,441명, 오사카(大阪) 993명의 순으로 되어 있듯이, 동경 및 동북 지방에 비해서 부산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간사이사람’이

4) 烏賀羅門(1914)『朝鮮へ行く人』朝鮮へ行く人に編纂所, pp.132-133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해, 일본인들의 주요 직업구성을 살펴보면, 관공리 467호, 잡화 274호, 고물상 129호, 백미소매상 115호, 음식점 115호, 이발소 72호, 하숙집 77호, 술판매상 59호, 전당포 47호, 무역상 39호, 신탄상 39호, 의사 38호, 목욕탕 31호, 포목상 29호, 여관 27호 등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듯이,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본인이 상업과 유통, 그리고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⁵⁾. 이와 같은 부산 거주 일본인의 출신 지역적·직업적 특수성을 생각하면, 부산의 독자층은 순문학보다는 대중소설을 선호하며, 직업적 특수성으로 ‘실업잡지’와 같은 ‘현실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는 독자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우가 라몬의 분석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가 라몬의 지적 중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와 같은 독자층의 형성에 대해서, 부산 거주 일본인의 출신 지역적·직업적 특수성 측면, 즉 소비자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서점 경영자의 ‘상업방식’의 문제로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부산의 일본인 경영 서점의 ‘상업방식’은 내지 일본에 비해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인 경영 서점이 식민도시 부산의 ‘학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부산일보에 실린 일본인 경영 서점의 신간 광고란은 식민도시 부산의 독자층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만세전』이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1918년 겨울의 부산일보에 실린 하쿠분도의 광고란⁷⁾에 주목해 보면, 1914년 단계에서는 전혀 읽히지 않았던 나즈메 소세키를 비롯한 츠보우치 쇼우요(坪内逍遙), 다야마 가타이(田山花袋), 히구치 이치요(樋口一葉) 등의 순문학의 작가 이름과 작품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14년 시점에는 팔리지 않았던 ‘군기, 군담류’의 소설에 대해서도 『참호생활(塹壕生活)』과 『잠수함이야기(潛航艇物語)』 등의 소설을 확인할 수 있듯이, 1914년과 1918년과는 부산의 독자층이 변화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하쿠분도의 신간 광고가 부산일보에 실리기 시작한 것은 하쿠분도가 부산에 개점한 1906년 시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1915년도의 『부산매입안내(釜山仕入案内)』에는 ‘요시다하쿠분도(吉田博文堂)’에 대해서, ‘이토 히로부미 공을 연상시키는 동명의 하쿠분도는 오랫동안 다이초초(大廳町, 지금의 대청동)’에 있었지만, 작년 겨울 매립지인 오오쿠라

5) 부산상업회의소(1912)『釜山要覽』부산상업회의소, p.10

6) 부산상업회의소(1912)『釜山要覽』부산상업회의소, pp.12-13

7) 1918년 12월 6일, 7일, 10일, 11일, 12일에 『부산일보』에 실린 하쿠분도의 신간 광고란에는 다음과 같은 작품이 실려 있다. 또한, 같은 시기의 『부산일보』에는 하쿠분도 이외에도 ‘오사카야고서점(大阪屋号書店, 大廳町 2, 전화 495번, 서적문방구도서매업)’ 부산지부의 신간 광고란이 게재되어 있는데, 후술하듯이 한일 양국의 자료에서 부산 소재의 동 서점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초(大倉町, 지금의 중앙동) 부산우체국 앞(전화 735번)으로 멋지게 신축을 해서 이전했다. 가게는 익숙한 서점. 주된 것은 교과서이고, 그 밖의 신간 서적 잡지는 무엇이든 있다⁸⁾라고 소개되어 있듯이, 1915년 당시 하쿠분도는 일반 ‘서적 잡지’보다는 ‘교과서’가 주력 상품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날짜	서적	저자	가격	
1918년 12월 6일, 7일, 10일, 11일, 12일에 『부산일보』에 실린 하쿠분도서점의 신간 광고.	詩集海港	柳澤健	一二〇	
	劇壇秘史 無線電話	田中成義	一五〇	
	毒と藥	田山花袋	一三〇	
	縮刷 漱石文集	夏目漱石	一一〇	
	冬の夜ばなし	坪内逍遙	一五〇	
	たけくらべ	樋口一葉	一四〇	
	不知火	長田幹彦	二五〇	
	二葉亭全集	坪内雄藏編	一八〇	
	曾我廼家喜劇集	五郎著	九〇	
	裏門から	関露香	一五〇	
	其日の話	大庭柯公	八五	
	響影	辻潤	八〇	
	塹壕生活	小田律譯	一〇〇	
	鴨川情話	長田幹彦	九〇	
	運命の丘	名作集三二	三八	
	煉瓦の雨	沖野岩三郎	一四〇	
	大正八年 日記各種			
	帝国の使命と青年の覚悟	田中義一	一五〇	
	支那正観	有賀長雄	一二〇	
	国家結成の時代	中村孝也	二〇〇	
	潜航艇物語	東健而	一五〇	
	投資物の比較研究	小川鉄堂	一二〇	
	儒教と現代思潮	服部宇之吉	七五	
	日本国体と日蓮主義	佐藤哲太郎	一四〇	
	修養百譚	山田愛劍	一五〇	
	富源 開拓シベリア実情	酒卷鷗公	九〇	
仏様の素行調査	文学士 木村浄円	一二〇		
神様の戸籍調べ	二酉洞学人	一二〇		
忍ぶ面影	史談会 編	一八〇		
釜山博文堂書店 電話七三五番 振替京城一一八番				

8) (1915)「吉田博文堂」『釜山仕入案内』釜山仕入案内編, p.73

실제로, 부산일보를 살펴보면, 1914년과 1915년에는 하쿠분도서점의 신간 광고를 찾아볼 수 없고, 1916년부터 부정기적으로 광고가 실리고 있다. 예를 들면, 1916년 10월 19일 광고에는 학교용 책상과 칠판, 그리고 상점용과 가정용 작은 칠판을 판매한다는 광고가 실려 있고, 같은 해 12월 19일 광고에는 ‘일기를 쓰지 않는 하루는 그 사람에게서 소멸되어 없어지는 하루이다’라는 미즈노 요슈(水野葉舟)의 『일기 쓰는 법(日記のつけ方)』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회중일기, 당용일기, 부인일기, 가정일기, 가계부, 주부일기, 수양일기, 학생일기, 문장일기, 하이쿠일기, (중략)실로 70여 종’이라고 되어 있듯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문구가 주력 상품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쿠분도의 주력 상품이 교과서와 문구에서 소설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은 1917년부터이다. 물론 1917년 12월 한 달 동안 부산일보에 실린 광고는 12월 4일 단 하루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하쿠분도가 1914년 겨울에 지금의 동광동에서 중앙동으로 이전하기 전과 직후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런데 1918년부터 월 3, 4회 신간 광고가 실리기 시작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무려 16회에 걸쳐 소설을 중심으로 한 신간 광고가 실리게 된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1918년 이후부터 하쿠분도의 신간 광고가 증가하고 또한 광고란이 변화했을까 인데, 그것은 한일합병 이후 식민도시 부산으로 이주해 온 일본인의 증가와 출신 지역의 다양성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할지 모른다. 부산 거주 일본인의 인구 변동을 살펴보면, 1910년에는 23,900명이었던 일본인이 1918년에는 27,895명, 1919년에는 30,499명, 1920년에는 33,085명⁹⁾으로 10년 사이에 무려 3분의 1에 해당되는 만 명 정도가 증가하고 있듯이, 일본 제국의 확장과 함께 일본 내지의 다양한 지역에서 부산으로 이주를 해 왔고, 결과적으로 독자층의 증가와 다양성을 고려해서 하쿠분도의 ‘상업방식’도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일본인 경영 서점의 실태 파악

일본에서 서점 간의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소매 서점이 전국서적상조합연합회를 결성하는 것은 1920년이고, 이를 받아들여 식민지 조선에서도 조선서적상조합이 조직화된 것은 다음 해인 1921년이다. 이와 같은 체제가 확립된 이후, 조합원 이외에는 일본 내지에서

9) 홍연진(2007)「부관연락선과 부산부 일본인」『부관연락선과 부산』논형, p.41. 1910년 부산의 조선인 인구는 20,990명, 1920년에는 40,532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다.

간행된 신간 도서 및 잡지의 판매가 어렵게 되는 유통체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히비 요시타카(日比嘉高)¹⁰⁾는 1935년에 발행된 『전국서적상총람(全國書籍商總覽)』을 토대로 조선에서 일본인이 경영했던 소매 서점이 일본의 어떤 도매업자와 거래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는데, 1935년 시점에서 부산의 서점은 하쿠분도(博文堂, 吉田市次郎)¹¹⁾, 구레타케도(呉竹堂, 鈴木静雄)¹²⁾, 고분도(広文堂, 武田信義)¹³⁾, 미야케타쿠조서점(三宅琢造書店, 三宅琢造)¹⁴⁾ 4곳이다. 물론 이것은 『전국서적상총람』의 거래처 조사에서 회신이 있었던 서점만을 데이터화한 것이며, 부산의 모든 서점을 망라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당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부산상공회의소(釜山商工会議所)』의 ‘서적’ 관련 항목을 보면, 좀 더 다양한 이름의 서점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1932년부터 『전국서적상총람』이 발행된 1935년까지의 3년간의 서점을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
- 10) 日比嘉高(2014)『朝鮮半島における日本語書店の展開 戦前外地の書物流通(1)』『跨境』創刊号, p.208
 - 11) 요시다 이치지로(吉田市次郎)는 1880년 니이가타 출생이며, 1904년에 조선으로 이주한다. 1906년에 이시구로 다다노리(石黒忠憲) 자작에게 조언을 구하고, 동경 하쿠분칸(博文館)의 오오하시 신타로(大橋新太郎)에게 소량의 도서를 차용해서 영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1912년부터는 조선에 국정교과서공급제도를 확립시키고, 경남 및 강원도를 포함한 7개도의 특약판매소를 개설·운영한다. 1914년, 이시구로 자작의 알선으로 현재의 점포(구관)를 신축하고(매입(평당 92엔) 당시는 풀밭이었지만, 이후 변화가 바뀌면서 평당 500엔으로 급상승), 1927년에 구관 옆에 6만 엔을 들여 철근 콘크리트 4층 건물을 신축하게 된다. 1919년, 나이토 데이치로(内藤定一郎), 아라이 다케노스케(新井武之輔) 등과 함께 조선서적상조합을 조직했으며, 이시구로 자작의 조언에 따라 정치계에는 진출하지 않고, 조선서적상조합 부회장, 부산니이가타현인 회장을 역임했다(『全國書籍商總覽』新聞之新聞社, 1935年, pp.16-18).
 - 12) 스즈키 시즈오(鈴木静雄)는 1903년 동경 출생이며, 초등학교 졸업 후 조선으로 이주한다. 창업은 메이지 ‘20년대’이며, 현재 5대 사카이 유타(酒井湧太)의 뒤를 이어 1930년부터 스즈키 시즈오가 경영을 맡게 된다(『全國書籍商總覽』新聞之新聞社, 1935年, pp.8-9).
 - 13) 다케다 노부요시(武田信義)는 1903년 히로시마 출생이며, 1927년에 에이분도(栄文堂)를 매수하면서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서점의 상호는 영업주가 히로시마 출신이라는 이유에서 고분도(広文堂)로 변경했으며, 서점은 일본식 2층 건물이다(『全國書籍商總覽』新聞之新聞社, 1935年, p.10).
 - 14) 미야케 다쿠조(三宅琢造)는 1891년 히로시마 출생이며, 22세 때 조선으로 이주한다. 창업은 1913년이며, 처음에는 ‘教授用品’만을 취급했지만, 1917년의 화재를 계기로 점포를 확장, 1921년에 大廳町로 이전한다. 또한, 1928년에는 서양식 3층 건물로 새로이 개축 이전하게 된다(『全國書籍商總覽』新聞之新聞社, 1935年, pp.14-15).

<식민지 부산의 일본인 경영 서점>(『부산상공회의소』)

서점, 서점주, 주소	1932년(영업세)	1934년(영업세)	1935년(영업세)
博文堂(吉田市次郎, 大倉町3—8)	○(146.76)	○(133.20)	○(125)
広文堂(武田信義, 大廳町2—12)	○(14.40)	○(14.40)	○(22)
吳竹堂(鈴木静雄, 本町1—23)	○(20.40)	○(16.80)	○(18)
文化堂(境好太郎, 幸町1—34)		○(12.60)	○(15)
★三宅琢造書店(三宅琢造, 大倉町4—36)		○(200.78)	○(202)
★三重出版社(土屋高一, 大廳町1—39)		○(113.83)	○(109)
東京堂(高瀬優, 大倉町2—28)			○(10)
吳竹堂支店(鈴木成雄, 草梁町172)			○(11)

(★표시는 <서적>이 아닌 <교육용 교재, 문구>로 소분류되어 있다)

먼저, 『부산상공회의소』의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서적상총람』의 4곳 이외에도 분카도(文化堂), 미에출판사(三重出版者), 도쿄도(東京堂), 구레타케도지점(吳竹堂支店) 등의 서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전국서적상총람』에서 제외된 4곳의 서점들이 조선서적상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모든 서점이 영업세를 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식 허가를 받은 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생 서점의 개업과 함께 하쿠분도의 영업세가 1934년과 1935년에는 소폭 하락하고 있고, 비례적으로 모든 서점의 영업세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생 서점들이 부산의 고객을 확실하게 확보해 가는 과정을 알 수 있다.

물론 미야케타쿠조서점과 미에출판사는 ‘서적’이 아닌 ‘교육용 교재, 문구’로 소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서적상총람』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고, 또한 1935년에 개업한 도쿄도와 구레타케도지점은 거래처 조사 기간과 맞지 않아서 리스트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다만, 『전국서적상총람』의 조선 서점 소개란에는 구레타케도지점에 대해서는 1931년 11월에 개점했다고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전국서적상총람』의 데이터는 부산의 모든 서점을 거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현재 부산의 시립시민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부산부편찬(釜山府編纂)』을 살펴보면 또 다른 이름의 서점이 확인된다. 소장되어 있는 1932년도와 1934년도의 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식민지 부산의 일본인 경영 서점>(『부산부편찬』)

서점, 서점주, 주소	1932년	1934년
広文堂書店(武田信藏、大廳町2—12)	○(小売)	○(武田信義)
文化堂書店(境好太郎、幸町1—34)	○(小売)	○
三光堂書店(山田勝男、富平町3—45)	○(小売)	○(山田時彦)
大林信一(大倉町4—29)	○(小売)	×
博文堂(吉田市次郎、大倉町3—8)	○(卸小売)	○
鈴木静雄(弁天町1—18)	○(卸小売)	○
鈴木成彦(草梁町172)		○(小売)
高瀬優(大倉町2—24)		○(小売)
松井武一郎(富平町1—39)		○(小売)

(고분도(広文堂)의 서점주의 이름은 1834년에는 다케다 노부요시(武田信義)로 변경되어 있고, 산코도서점(三光堂書店)은 아마다 도키히코(山田時彦)로 변경되어 있다)

먼저, 『전국서적상총람』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누락된 서점을 살펴보면, 산코도서점(三光堂書店)과 서점주의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는 오오바야시 신이치(大林信一), 그리고 마츠이 다케이치로(松井武一郎)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오오바야시 신이치가 운영하는 서점은 1934년에 폐업한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1935년 발행의 『전국서적상총람』에는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산코도서점과 1934년에 개점한 마츠이 다케이치로의 서점은 『전국서적상총람』과 『부산상공회의소』 양쪽 모두에서 이름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단순히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부와의 자료가 공유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고, 또한 1935년 전후로 급증하기 시작하는 서점의 실태 파악에 대한 행정상의 시간차 및 조사 기관의 분류방식의 차이 등, 추후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조사가 필요하다.

물론 이와 같은 사실은 위의 표에서 정리한 1932년 이전의 서점의 추이에 대해서도 조금 더 면밀한 역학 조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앞서 소개한 1902년의 『한국안내(韓國案内)』에는 요시미서점(吉見書店)과 오가타서점(尾縣書店)이 소개되어 있지만, 1907년의 『전국서적상명부(全國書籍商名簿)』에는 오가타서점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고, 하쿠분도(博文堂, 吉田市次郎, 大廳町)서점과 요시미케이린도(吉見鷄林堂, 吉見勝次郎, 弁天町) 2곳만이 소개되어 있다. 또한, 1924년의 『전국서적상조합원명부(全國書籍商組合員名簿)』에는 하쿠분도(博文堂, 吉田市次郎, 大倉町5), 구레타케도(呉竹堂, 山本久松, 弁天町1-9), 사사키서점(佐々木書店, 佐々木喜三郎, 大廳町2), 에이분도(栄文堂, 清水寅次郎, 大廳町2) 4곳만이 소개되어 있고, 요시미케이린도의 이름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을사조약 이전부터 영업을 시작한 오가타서점은 적어도

1902년부터 1907년 이전까지 영업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요시미서점은 ‘요시미케이린도’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영업을 계속하다가 결국 1924년 이전에는 폐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1928년 11월에 니시오카도안설계소광고부(西岡圖案設計所廣告部)가 발행한 『부산영업가요람(釜山營業家要覽)』에는 세이분도서점(淸文堂書店, 大倉町3-19)이 새롭게 확인되며, 사사키서점과 에이분도서점은 앞서 표에서 살펴본 1932년 이후의 자료에서는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다(다만, 에이분도서점의 경우는 앞서 소개한 『전국서적상총람』의 조선 서점 소개란을 통해서 고분도(廣文堂)서점이 1927년에 매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식민지 부산 소재의 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발행된 서적뿐 아니라, 전후 소실된 조선 측 자료 역시 추적·발굴해서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국서적상총람』의 조선 서점 소개란에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경영자의 소개뿐 아니라 점원수도 함께 표기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구레타케도는 11명, 고분도는 3명, 미야케타쿠조서점은 총 20명이다(하쿠분도는 점원에 대한 언급이 없음). 그런데 일본인이 경영하는 서점의 점원은 모두 일본인이 아니라, 구레타케도의 경우에는 조선인 점원이 무려 7명이고, 미야케타쿠조서점은 6명(한 명은 조선인 여성)이 조선인 점원으로 되어 있다. 즉, 조선인 점원을 채용하고 있는 서점은 평균적으로 반 정도의 비율로 조선인을 서점에 배치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식민지 부산의 일본인 경영 서점의 고객층이 단지 재조일본인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조선인 역시 주요 고객층으로 상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만세전』의 부산 표상과 공모하는 제국의 시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식민도시 부산의 중앙동 ‘삼거리’ 풍경, 즉 주인공 이인화가 ‘삼거리’에 서서 한참 사면팔방을 돌아다보다가 부산의 ‘시가’로 향하지 않고, ‘조선 사람의 동리’로 향하는 동시대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현재까지 『만세전』의 부산 표상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은 편인데, 예를 들면 이미림은 이인화의 부산 인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부산에 도착해 조선사회로 들어서면서 내가 발견하는 것은 자신과는 다른 조선인들과 조선사회이다. 나는 자신과 같은 조선인들에게서 자신과 다름을 발견한다. 현실의 민족과 관념 속에 있는

민족 사이의 괴리를 깨닫지 못한 채, 나는 이제 조선인들을 관찰하고 발견해 나간다. 나에게 허상으로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조선인이 근대적 주체인 여행자의 시선을 통해 표상된다. 연락선 안에서 고조되었던 민족인식은 부산에서 서울로 진행되는 여로에서 점차 전근대적이고 어리석으며 미개한 각 계급의 조선인들을 접하면서 식어가고, 마침내 나는 조선의 현실이 묘지임을 선언한다. 내가 발견하게 되는 조선인상은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생산해낸 조선인의 이미지와 닮아있다. 소설 내내 등장하는 무덤, 공동묘지, 죽음의 이미지는 식민지 조선의 참혹한 현실을 상징하고 있다.¹⁵⁾

이미림은 조선인 유학생 이인화가 발견하는 ‘조선인상’과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생산한 ‘조선인상’과의 공범관계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대담론에 의한 근대성 비판은 동시대의 부산 및 다른 지역과의 표상의 차이라고 하는 지역적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며, 또한 주인공의 부산 인식을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정치적인 차원에서만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차원에서의 부산 표상을 둘러싼 조선인과 일본인의 상호교섭성 역시 간과될 우려가 많다.

그렇다면 『만세전』이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1918년 당시, 일본의 여행 관련 서적에서는 부산을 어떻게 표상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1918년에 발행된 『일본의 명승(日本の名勝)』에는 조선을 일본 국민국가의 한 ‘지방’으로 분류하면서, 부산과 울산, 마산과 진해, 경성과 주변, 개성과 평양, 조선의 명산 금강산을 소개하고 있는데, 부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내지와 조선과의 연락점인 부산항은 시모노세키로부터는 해로 122해리, 철도 연락선은 대략 11시간 반이면 도착한다. 항구는 뒤쪽으로 노송이 울창한 용두산, 남쪽에는 신록이 녹음진 절영도(絶影島)를 바라보고 있어 경치도 좋고, 부산 시기는 용두산을 에워싸고 있고 내지를 연상케 하는 도시를 형성하면서 변화하다. 부산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울 뿐 아니라 양항(良港)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우리나라와의 관계도 깊었다. 또한 많은 내지인이 이주해 있고, 지금은 3만 명에 달한다.¹⁶⁾

동 서적에서는 부산의 시가지 이외에도 ‘부산진’과 ‘동래온천’, 그리고 ‘금정산 범어사’도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 주의할 점은 용두산은 지리적 특성상 부산 ‘시가지’에 에워싸여 있고, 따라서 용두산을 구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산 ‘시가지’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중앙동

15) 이미림(2006)「근대인 되기와 정주 실패-여행소설로서의 <만세전>」『현대소설연구』, p.110
 16) 正木貞次郎(1918)『日本の名勝』科外教育叢書刊行会, pp.271-272. 동 서적에서 소개하는 외지 관광명소에 는 조선이외에도 ‘대만’이 포함되어 있다.

‘삼거리’에서 하쿠분도서점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며,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꼭 하쿠분도서점 방향이 아니더라도 주인공 이인화가 최초 계획한 부산 ‘시가’ 방향은 동시대의 관광 명소 용두산과 이어지는 통로였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지리적 특성에 대해서는 동시대의 다양한 여행 및 시찰 관련 서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청년의 만선 산업 견물(青年の滿鮮産業見物)』(1919년)에서는 ‘산(용두산)을 등에 업고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부산 시가지’는 일본의 ‘고베(神戸)’를 연상케 하는 도시이며, 부산에는 용두산 이외에는 ‘이러 타할 관광 명소는 없’고, ‘월야의 용두산, 그것은 좀처럼 잊지 못할 운치가 있다’¹⁷⁾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부산을 경유하는 다양한 신분의 여행자들(예를 들면 신문기자¹⁸⁾, 변호사¹⁹⁾, 교사²⁰⁾ 등이 기차 시간의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구경하는 곳 역시 부산 ‘시가’를 통과하는 용두산이었다. 이후, 1939년에 부산관광협회가 발행한 『부산관광안내도(釜山刊行案内圖)』에도 1시간 코스(부산역-중앙도매시장-부산대교-용두산-부산역), 2시간 코스(부산역-중앙도매시장-부산대교-용두산-부평동시장-송도-부산역), 3시간 코스(부산역-중앙도매시장-부산대교-용두산-부평동시장-송도-산업장려관-고관(古館)공원-자성대-부산역) 모두에 용두산은 필수 코스로 선정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1918년 전후의 여행안내서에서 소개하는 부산의 관광지 및 관광 코스를 생각하면, 『만세전』에서 주인공 이인화가 기차 시간까지 ‘서너 시간’이 남아 부산 ‘시가’를 구경하려는 행위 자체는 ‘공동묘지’와 같은 조선의 현실 비판을 위한 염상섭만의 장치라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동시대의 제국 일본이 생산해 낸 수많은 여행안내서라고 하는 학지의 코스를 반복하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인화는 부산 ‘시가’로 향하지 않고 ‘조선 사람의 동리’로 향하는 것이 동 소설의 흥미로운 점인데, 이것은 달리 말하자면 중앙동 ‘삼거리-시가-용두산’이라고 하는 동시대의 여행안내서가 만들어낸 학지를 역행하는 행위이며, 그런 의미에서 식민지 학지를 진열, 판매하는 하쿠분도서점이 있는 ‘삼거리에 서서 한참 사면팔방을 돌아다보다’가 ‘조선 사람의 동리’로 궤도 수정을 한 것은 일본 제국의 시선에 대한 저항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주인공 이인화가 동시대의 학지를 역행하면서 찾아가는 ‘조선 사람의 동리’ 역시 동시대의 일본 내지의 각종 시찰단들이 자주 찾아가는 코스이기도

17) 植村寅(1919)『青年の滿鮮産業見物』大阪屋号書店, pp.5-11

18) 岡島松次郎(1925)『新聞記者の旅』大阪朝報社出版, p.196

19) 石井謹吾(1923)『滿鮮支那遊記』外遊叢書第4編, 日比谷書房, pp.22-24. 동 서적의 필자는 부산변호사회원의 안내로 부산 시내를 구경한 다음에 용두산 공원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용두산 공원에서 바라보는 부산 시내의 전경 및 부산 인근의 조망에 대해서, 마치 ‘파노라마’를 보는 것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20) 高井利五郎(1923)『鮮滿支那之教育と産業』広島県立広島工業学校, p.2

했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주인공 이인화의 조선인 표상 역시 많은 부분 동시대의 시찰단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과 일치한다. 예를 들면, 소설 속 조선인 표상과 오카야마현(岡山県)에서 과견된 시찰단의 보고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땅마지기나 있던 것을 까블러 버리고, 집 한 채 지녔던 것이나마 문서가 이 사람 저 사람의 손으로 넘어 다니다가 변리에 변리를 쳐서 내놓고 나가게 될 때라도 사람이 살려면 이런 꼴도 보고 저런 꼴도 보는 것이지 하며, 이것도 내 팔자소관이라는 값싼 낙천주의나 단념으로 대대로 지켜 내려오던 제 고향의 제집, 제 땅을 버리고 문밖으로 나가고 산으로 기어들 뿐이요, 이것이 어떠한 세력에 밀리기 때문이거나 혹은 자기가 착실치 못하거나 자제력과 인내력이 없어서 갑살리고 만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없었던 것이다. (pp.174-175)

본서는 저자가 오카야마현(岡山県)에서 선출된 시찰단원으로서, 만선 청도를 현지답사 연구하고 실제로 보고 들은 사실을 지극히 공정한 입장을 지키며 사사로운 감정을 섞지 않고, 그 어떤 속박도 받지 않으며, 가장 구체적이면서 가장 통속적으로, 더욱이 취미와 실리를 중심으로 신부(新附) 대륙에 대한 연구심과 취미를 환기시키는 데 일조하고, 이를 통해 해외사정을 이해하고 식민사상을 조장하며, 국민사상의 근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편찬한 것이다. (중략)이시하라(石原) 씨가 현인회를 대표해서 환영사, 다케이(武居) 단장의 답사로 건배를 하고, 후에 가미야마(上山) 보통학교장, 마츠무라(松村) 부산제3소학교장의 안내로 용두산공원, 조선교육, 조선인부락(鮮人部落)을 시찰했다. (중략)조선인의 특징을 손꼽는다면, 나태함은 그 하나다. 단조로운 일을 질려하지 않고 종일 부지런히 힘쓴다. 더욱이 그것이 자발적이지 못하고 공동적이지도 못하며 모든 것이 타동적이다. 종순함도 그 하나일 것이다. 사회적 인습에 의해 기계적으로 종순하다. 교육 행정상 자학적(自學的) 종순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21)

오카야마현의 시찰단이 작성한 여행 보고서는 단순히 식민지 조선과 만주를 여행하려는 일본인을 위한 가이드북 이상으로,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 이주하려는 일본인을 위한 ‘식민사상’의 이식이라는 역할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행’이라는 문화적 차원과 ‘식민사상’이라는 정치적 차원과 상관관계도 엿볼 수 있는데, 부산에 도착한 시찰단이 방문한 곳은 다름 아닌 ‘용두산공원, 조선교육, 조선인부락’이다. 즉, ‘조선 사람의 동리’를 찾아가는 소설 속 이인화의 동선은 동시대의 시찰단에게는 이미 익숙한 코스였다. 또한, 여행안내서의 조선인에 대한 설명과 소설 속 조선인 표상과를 비교/분석해 보면, 주인공 이인화가 비판하는 조선인의 ‘내 팔자소관이라는 값싼 낙천주의나 단념’은 보고서의 ‘기계적 순응’에 대응하고, ‘자제력과

21) 金岡助九郎(1920)『滿鮮旅行案内』駢々堂書店, pp.1-15

인내력이 없어서 갑살리고 만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없었던 것이다’는 ‘자발적이지 못하고 공동적이지도 못하며 모든 것이 타동적이다’와 일치한다.

그리고 이인화는 조선 사람들이 ‘대대로 지켜 내려오던 제 고향의 계집, 제 땅을 버리고 문밖으로 나가고 산으로 기어들’어가는 이유를 ‘값싼 낙천주의나 단념’ 탓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장면은 고베시(神戸市)에서 파견된 시찰단의 보고서 속에서, ‘인구는 6만 350백 여 명, 그중 40퍼센트는 내지인이다. 상공업의 실권은 모두 내지인이 장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생존경쟁의 결과로 조선인은 해마다 시의 중심부에서 산악부로 쫓겨나 지금의 뒤쪽 산복(山腹)에 밀집해서 여명을 이어가는 데 불과하다. 내지인이 이것을 보고 약육강식의 결과라고 당연시하는 것은 일선동화의 대국에서 관찰할 때, 사려 있는 태도라고는 볼 수 없다²²⁾’라고 하는 비판과 구조적으로 일치한다. 즉, 성격이 서로 다른 소설과 시찰 보고서는 조선인 거주지의 주변화라고 하는 동일 문제에 대해서, 전자는 조선인의 전근대성을 비판하는 문맥으로 유동하고 있고, 후자는 일본인의 ‘식민지 근성’을 지적하는 문맥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인공 이인화의 조선표상은 일본인이 생산해낸 타자표상과 공모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산 표상을 둘러싼 조선인과 일본인의 공모관계에 주목하면, ‘조선 사람의 동리’를 찾다가 들어간 ‘일본 국숫집’의 여성 접대부가 왜 혼혈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주목할 부분은 혼혈 여성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이인화의 시선과 ‘잡자코 내 얼굴을 익숙히 치어다’보는 혼혈 여성의 시선이 교차하는 장면이며, 또한 교차하는 시선 속에서 예상치 못하게 등장하는 동경의 일본인 여성 ‘정자’의 이름이다.

“그러나 너 아버지를 찾아간대야 얼굴이 저렇게 이쁘니까, 그걸 미끼로 팔아먹으려고 무슨 짓을 할지 누가 아니? 그것보다는 여기서 돈 푼 있는 조선 사람이나 하나 얻어 가지고 제 맘대로 사는 게 좋지 않느냐. 너 같은 계집애를 데려가지 못해하는 사람이 조선 사람 중에도 그득하리라.” 나는 타이르듯이 이런 소리를 하고, 계집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웃었다.

“글쎄요..... 하지만 조선 사람은 난 싫어요. 돈 아니라 금을 주어도 싫어요.”

계집애는 진담으로 이런 소리를 한다. 조선이라는 두 글자는 자기의 운명에 검은 그림자를 던져 준 무슨 주문(呪文)이나 듣는 것같이 이에서 신물이 나는 모양이다. 이때에 나는 동경의 정자를 생각하면서,

“그럼 나도 빠질 차례로구나?”

하며 웃었다. 계집도 웃으며 잡자코 내 얼굴을 익숙히 치어다본다.

(184-185쪽)

22) 伊藤貞五郎(1921)『最近の朝鮮及支那』神戸市会支那視察団, pp.18-20

혼혈 여성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구모룡은 ‘식민지 해항도시에서 나타나는 혼종화 과정을 매우 효과적으로 상징하는 장치’²³⁾라고 지적하고 있고, 권혁건 역시 일본문화와 조선문화가 비대칭적으로 희석된 식민도시 ‘부산의 어둠을 냉철하게 응시’²⁴⁾하게 하는 존재라고 분석하고 있다. 물론, 혼혈 여성의 존재가 일본 제국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종화’의 상징적인 존재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인화가 국숫집에서 불쾌감을 느끼고 뛰쳐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그런 이유에서만은 아니다. 또한, 이인화가 불쾌감을 느끼는 것은 혼혈 여성의 ‘조선 사람은 난 싫어요 돈 아니라 금을 주어도 싫어요’라고 일본과 조선의 비대칭적인 관계에 직면했기 때문만도 아니고, “객지에서 매우 궁하신 모양이군요”라고 ‘이상스럽게 지레짐작을 하고 판창’을 피워서도 아니며, 더욱이 부산 ‘시골자’ 여성 접대부들의 태도가 도시에 비해 ‘빠지’기 때문만도 아니다. 이인화가 혼혈 여성과의 대화에서 불쾌감을 느끼는 이유는 혼혈 여성이 내포하고 있는 혼종성은 다름 아닌 조선인 유학생의 민족적 아이덴티티 확립이 제국 일본의 학지를 통해서 밖에 구축될 수 없다는 모순을 폭로하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인공적인 본인의 주체성에 대해서 일본인 여성 ‘정자’ 역시도 알아채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즉, 혼혈 여성의 설정은 식민지 조선인에 의한 자아 표상(=주체화 과정)이 제국 일본이 생산해낸 타자 표상과 끊임없이 공모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초점화시키기 위한 장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5. 나오며

본고에서는 일본 제국의 영토 확장과 함께 식민도시 부산에 진출한 일본인 경영 서점에 대한 기초적인 실태 조사(서점수, 위치, 경영자, 영업행태, 취급서적 등)를 목적으로 했다.

먼저 『부산일보』에 실린 하쿠분도(博文堂)서점의 신간 광고란에 주목해 보면, ‘교과서 및 문구’에서 소설 일반으로 주력 상품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1917년부터 1918년에 걸쳐서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부산의 독자층이 ‘대중소설’에서 ‘순문학’으로 변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1918년 전후부터 당시 부산 거주 재조일본인의 인구가 1910년 대비 3분의 1정도가 급증했다는 사실과 그에 따른 출신지역과 종사 업종의 다양화와 연동된 변화라고 해석할 수 있다.

23) 구모룡(2011)「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해항도시 부산의 근대 풍경」『해양도시문화교섭학』, p.93

24) 권혁건·이경규·전수진(2013)「한·일 근대소설에 묘사된 부산과 도쿄의 도시 공간에 대한 비교」『일본 근대학연구』, p.109

또한, 1921년에 식민지 조선에 조선서적상조합이 조직화되면서 조합원 이외에는 일본 내지에서 간행된 신간 도서 및 잡지의 판매가 어렵게 되는 유통체계가 확립되는데, 일본의 『전국서적상총람』과 부산에서 발행된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부편찬』 등의 자료를 비교/분석해 보면, 한일 양국의 자료에서 누락 및 일치하지 않는 서적이 다수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발행된 자료들에서도 불일치가 확인되는데, 이것은 조사 기간 및 조사 방법, 또는 조사 기관의 분류 방법의 차이에 따른 불일치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추후 해방 이후에 소실된 한국 측 자료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서, 조선서적상조합의 가입 여부 및 체계적인 데이터화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식민도시 부산의 일본인 경영 서점의 추이와 염상섭의 『만세전』에 나타난 부산 표상을 분석해 보면, 주인공 이인화가 최초 부산 ‘시가’에서 ‘조선 사람의 동리’로 목적지를 바꾼 선택은 중앙동 ‘삼거리-시가-용두산’이라고 하는 동시대의 여행안내서가 만들어낸 학지를 역행하는 행위이며, 그런 의미에서 식민지 학지를 진열, 판매하는 하쿠분도서점의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이인화의 궤도는 일본 제국의 시선에 대한 저항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인화가 동시대의 학지를 역행하면서 찾아가는 ‘조선 사람의 동리’ 역시 동시대의 일본 내지의 각종 시찰단들이 자주 찾아가는 코스였다는 점에서, 이인화의 부산 표상은 일본인이 생산해낸 부산 표상과 공모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산 표상을 둘러싼 조선인과 일본인의 공모관계에 주목하면, ‘조선 사람의 동리’를 찾다가 들러간 ‘일본 국숫집’의 여성 접대부가 왜 혼혈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즉, 주인공 이인화가 혼혈 여성과의 대화에서 불쾌감을 느끼고 국숫집을 뛰쳐나오는 이유는 혼혈 여성이 내포하고 있는 혼종성은 다름 아닌 조선인 유학생의 민족적 아이덴티티 확립이 제국 일본의 학지를 통해서 밖에 구축될 수 없다는 모순을 폭로하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인공적인 본인의 주체성에 대해서 일본인 여성 ‘정자’ 역시도 알아채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즉, 혼혈 여성의 설정은 식민지 조선인에 의한 자아 표상(=주체화)이 제국 일본이 생산해낸 타자 표상과 끊임없이 공모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초점 화시키기 위한 장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參考文獻】

- 염상섭(2008) 『만세전』 열림원
 신승모(2011) 「조선의 일본인 경영 서점에 관한 시론-일한서방(日韓書房)의 사례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香月源太郎(1902) 『韓国案内』 青木嵩山堂
 烏賀羅門(1914) 『朝鮮へ行く人に』 朝鮮へ行く人に編纂所

(1915)「吉田博文堂」『釜山仕入案内』釜山仕入案内編
日比嘉高(2014.6)「朝鮮半島における日本語書店の展開 戦前外地の書物流通(1)」『跨境』創刊号
(1918.12.6)『釜山日報』
後藤金壽編輯(1935)『全国書籍商総覧』新聞之新聞社
(1932)『釜山商工会議所』釜山商工会議所
(1934)『釜山商工会議所』釜山商工会議所
(1935)『釜山商工会議所』釜山商工会議所
(1932)『釜山府編纂』釜山府編纂
(1934)『釜山府編纂』釜山府編纂
(1928)『釜山營業家要覧』西岡図案設計所広告部
이미림(2006)「근대인 되기와 정주 실패-여행소설로서의 <만세전>」『현대소설연구』
正木貞次郎(1918)『日本の名勝』科外教育叢書刊行會
植村寅(1919)『青年の滿鮮産業見物』大阪屋号書店
高井利五郎(1923)『鮮滿支那之教育と産業』広島県立広島工業学校
釜山觀光協會(1939)『釜山刊行案内図』釜山觀光協會
金岡助九郎(1920)『滿鮮旅行案内』駸々堂書店
伊藤貞五郎(1921)『最近の朝鮮及支那』神戸市會支那視察團
구모룡(2011)「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해항도시 부산의 근대 풍경」『해양도시문화교섭학』
김승(2009)「일제강점기 해양도시 부산의 형성과 발전」, 『동아시아, 개항을 보는 제3의 눈』인하대한국학연구소
권혁건·이경규·전수진(2013)「한·일 근대소설에 묘사된 부산과 도쿄의 도시 공간에 대한 비교」『일본근대
학연구』

논문투고일 : 2015년 06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5년 06월 20일
1차 수정일 : 2015년 07월 08일
2차 수정일 : 2015년 07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5년 07월 20일

〈要旨〉

제국 일본의 출판유통과 식민지 부산의 도시문화 변용 - 일본인 경영 서점과 염상섭 『만세전』을 중심으로 -

본고에서는 일본 제국의 영토 확장과 함께 식민도시 부산에 진출한 일본인 경영 서점에 대한 기초적인 실태 조사(서점수, 위치, 경영자, 영업형태, 취급서적 등)를 목적으로 했다.

먼저 『부산일보』에 실린 하쿠분도(博文堂)서점의 신간 광고란에 주목해 보면, ‘교과서 및 문구’에서 소설 일반으로 주력 상품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1917년부터 1918년에 걸쳐서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부산의 독자층이 ‘대중소설’에서 ‘순문학’으로 변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당시 부산 거주 재조일본인의 인구 증가, 출신지역과 종사 업종의 다양화와 연동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1921년에 조선서적상조합이 조직화되면서 조합원 이외에는 일본 내지에서 간행된 신간 도서 및 잡지의 판매가 어렵게 되는 유통체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일본의 『전국서적상총람』과 부산에서 발행된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부편찬』 등의 자료를 비교/분석해 보면, 누락 및 일치하지 않는 서점이 확인된다. 따라서, 해방 이후 소실된 한국 측 자료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서, 조선서적상조합의 가입 여부 및 체계적인 데이터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식민도시 부산의 일본인 경영 서점의 추이와 염상섭의 『만세전』에 나타난 부산 표상을 분석해 보면, 주인공 이인화가 최초 부산 ‘시가’에서 ‘조선 사람의 동리’로 목적지를 바꾼 선택은 중앙동 ‘삼거리-시가-용두산’이라고 하는 동시대의 여행안내서가 만들어낸 학지를 역행하는 행위이며, 그런 의미에서 식민지 학지를 진열, 판매하는 하쿠분도서점의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이인화의 궤도는 일본 제국의 시선에 대한 저항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인화가 동시대의 학지를 역행하면서 찾아가는 ‘조선 사람의 동리’ 역시 동시대의 일본 내지의 각종 시찰단들이 자주 찾아가는 코스였다는 점에서, 이인화의 부산 표상은 일본인이 생산해낸 부산 표상과 공모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Study on Japan Empire's Publication Distribution and Transformation of City Culture of Colony Busan

- Focus on Japanese Management Bookstore and Yeom, sangseob's 『Mansejeon』 -

This research aimed at conducting basic real state investigation(e.g. number of bookstore, location, CEO, business type, treating books, etc.) on Japanese management bookstore that advanced into colony city Busan along with Japan Empire's territory extension.

First, when paying attention to new book advertising column of Hakubundo(博文堂) bookstore in 『Busan Ilbo』, the period that major products began to change to general novel from ‘textbook and stationery’ was during 1917 to 1918. Such change means that reader class of Busan was transformed into ‘pure literature’ from ‘public novel,’ which implies that it was connected with population increase, native place, and engaging business type of Japanese in Josun who resided in Busan.

Also, as Joseon Book Commercial Union was organized in 1921, a distribution system was created that made sales of new books and magazine published in Japan, difficult besides association members, when comparing/analyzing the material of Japanese 『National Book Commercial Comprehensive Survey(全国書籍商総覧)』 and 『Busan Chamber of Commerce(釜山商工会議所)』 published in Busan and 『Busanbupyeonchan(釜山府編纂)』, etc., some bookstores are confirmed to have omission or be in discor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whether of subscription to Joseon Book Commerce Union and systematic data work through the tracing survey on Korean data that was lost since the liberation.

Lastly, when analyzing symbol of Busan in the progress of Japanese management bookstore in colony city Busan as this and Yeom, sangseob's 『Mansejeon』, the reason why the main character Lee, inhwa changed the destination to ‘Joseon people's Dongri’ from the initial Busan ‘Siga’ was the result of being conscious of Hakubundo bookstore that symbolized ‘Hakji(未知)’ of Busan at that time, also, interactional negotiation could be confirmed between self symbol of colony Joseon people and symbol of others by Japanese people in respect that such track modification and symbol of Joseon people coincided with the content of Japanese tourist guidebook of that time a lot.